

다윗의 희생

핵심 구절: "그러나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대답하기를, 아니, 나는 그것을 제값에 사겠다고
고집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 값도 들이지 않은
번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역대하 21:24

선택한 성구:

역대하 21:14-30

주님은 다윗에 대해 그가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14,
사도행전 13:22). 이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소서. 내 안에 충성스러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10). 그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항상 깨끗한 것은 아니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때로 잘못된 영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동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깨끗해지고 '올바른 영'이 내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예는 그가 군대 대장 요압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여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다윗의 선견자, 즉 선지자인 갓에게 말씀하시며 이 범죄에 대한 징벌로

3년 기근, 3개월 적에게 멸망, 3일 전염병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지시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선택을 거부하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시니"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엘하 24:2-4; 역대상 21:1-13

하나님께서서는 3일 동안 전염병 징벌을 내리셨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지만 곧 천사에게 "그만! 그만하라! 그 순간 여호와와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하여 죄를 지은 것은 백성이 아니라 자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에게 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14-17절

하나님께서서는 천사를 통해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오르난은 먼저 "천사를 보았고" 다윗이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타작마당에 대해 "제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타작마당을 산 후,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번제단 위에 불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바탕으로 주님은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18-28절

다윗의 주님에 대한 헌신의 진실성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선물로 받거나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정가로 사서 주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고집하는 그의 모습에서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그는 아무 값도 들지 않는 번제를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24절).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교훈입니다. 어차피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가 없는 것만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진정한 헌신의 증거를 거의 또는 전혀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록에 대한 마지막 참고 사항으로, 다윗이 구입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훗날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인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역대하 3:1